

독산동 공군부대의 실질적이며 조속한 이전을 위한 촉구결의안

의안번호	2202
------	------

발의일자 : 2022. 7. 27.

발 의 자 : 고영찬, 이인식, 김용술,
도병두, 정순기, 장규권,
정재동, 엄셋별, 윤영희,
고성미 의원

1. 주 문

- 1943년부터 금천구에 주둔한 공군부대부지(12만5천㎡)는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금천 구심 한복판에 위치하게 되어 지역균형발전 저해, 생활권 단절 및 안전에 대한 구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공군부대 부지는 서울시 내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가용토지로서 도하부대 개발 완료 및 신안산선 개통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G밸리와 연계한 첨단 산업지원 기능 및 일자리 창출, 금천구에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 및 전략적 개발을 위해 조속한 이전 및 개발 추진이 요구되고 있어 24만 구민과 함께 공군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가.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은 금천구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앞서 군부대 일부가 이전한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립되어, 금천구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고, 신안산선 개통 및 경부선 지하화로 도심지 개발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군부대로서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존치의 이유가 없으며, 주민들의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완전 이전이 옳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음.

- 나. 현재 국방부가 존치하고 있는 독산동 공군부대는 지난 2020년 6월 일반 사병이 부사관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1인실에서 특혜복무를 했던 ‘황제 군복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리 부실이 군기강 해이로 이어지고 있으며, 주변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군기강확립 및 전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전투력 강화차원의 완전이전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음.
- 다. 독산동 공군부대의 완전한 이전을 위해 그동안 서울시·SH공사·국방부 협업 진행, 구민위원회 운영, 이전 촉구 결의 등 구체적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구민의 염원이 최고조에 이르는 현재, 부대이전 일정을 확정하고 조속한 부대 이전을 위해 실질적인 이전 업무를 추진하는 민·관·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함.
- 라. 이에 구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23만 금천구민의 뜻을 모아 정부 및 국방부에 독산동 공군부대 실질적이며 조속한 완전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함.

3. 이송처 : 정부(국방부)

4. 불 임 : 독산동 공군부대의 실질적이며 조속한 이전을 위한 촉구결의안 1부

독산동 공군부대의 실질적이며 조속한 이전을 위한 촉구결의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완전이전은 23만 금천구민의 염원이자 숙원사업이며, 주변개발과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군부대가 사건사고만 발생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존치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제는 구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때이다.

군부대는 관리부실로 인한 흉물로 자리잡아, 금천구의 경관을 훼손하고 지난 2020년 6월 일반사병이 부사관에게 심부름을 지시하고, 1인실 특혜복무를 하는 등 군의 기본적인 기강까지 무너뜨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으며, 완전이전의 경우 존치보다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이익이 훨씬 많다는 점에서 국방부는 지체없이 공군부대 이전을 조속히 실행하여야 한다.

공군부대 완전이전의 선결은 단순히 금천구민에게 땅을 돌려주는 것이 아닌, 서울의 관문도시이자, 서남권의 중심지역으로서 지역개발을 추진하는데 최대의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구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전달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23만 금천구민의 뜻을 모아 독산동 공군부대 완전이전으로 뜻을 모아 국방부에 실질적이고 조속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금천구민은 도심 중심부에 군부대가 존치되는 것에 결사반대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군부대의 실질적이며 조속한 완전이전을 촉구한다.

하나, 독산동 공군부대가 실질적이며 원활하게 완전이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군은 상호 적극협조하며, 이전 일정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조속히 만들도록 촉구한다.

하나, 공군부대 이전문제는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사안으로, 국방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금천구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한 업무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하나, 수도 서울의 서남권 관문도시, 23만 금천구 주민의 뜻을 받들어 국방부는 즉각 완전이전을 약속하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